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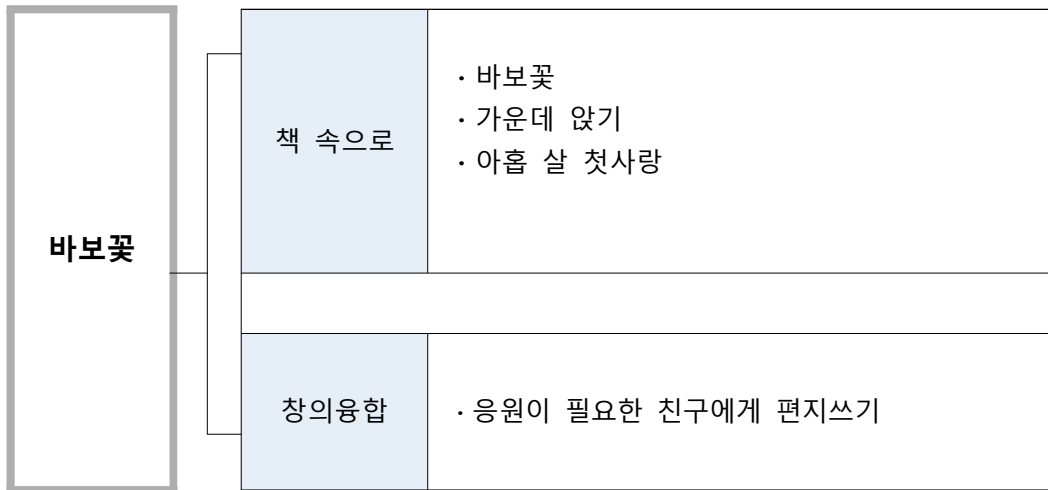
# 바보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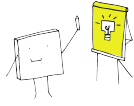
- \* 글 : 유진
- \* 그림 : 윤문영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80쪽
- \* 대상 : 초등 전 학년

## · 책 소개

『바보꽃』 동화는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가족, 우정, 사랑에 관한 세 편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동화집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작가는 어린이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용기 내어 계속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해 주지요. 특별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들처럼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모든 어린이를 이 동화로 응원해 봅니다.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바보꽃》의 책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  |
|--|
|  |
|  |
|  |

2. 《바보꽃》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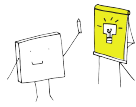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할머니랑 살게 되어 버려진 느낌을 받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고 싶지만, 맘처럼 되지 않는 아이.  
 고장 난 로봇처럼 삐걱대며 첫사랑을 겪는 아이.  
 때론 외롭고, 짜증 나고, 괴롭지만  
 이런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단단하게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1) 《바보꽃》은 가족,友情,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단편집입니다. 友情에 관한 이야기 속 아이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2) 첫사랑을 겪는 아이는 왜 고장 난 로봇처럼 삐걱대는지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유를 적어보세요.

3) 때로는 외롭고, 짜증 나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은 어떤 말을 해 주고 있나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바보꽃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저씨가 구석에 있는 지저분한 화분 하나를 주었다.

“꽃을 못 피워서 버리고 간 거니까 이걸 가져가려무나. 어서 받아. 학교 늦을라.”

플라스틱 화분에는 풀 한 포기 자라고 있었다. 화분을 옆구리에 끼자 가슴이 뻘뻘해졌다.

나) 화분에 이름을 써서 교실 창틀에 올려놓았다. 올망졸망한 화분들 옆에 놓고 보니 내 화분도 잘 어울렸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화분 가져오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좋았다.

다) 교실을 나오려는데 뭔가 허전했다.

‘뭐가 빠졌나?’

나는 찜찜한 기분으로 교실을 돌아보았다. 창문가에 알록달록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꽃이 피지 않는 내 화분도 있었다.

‘아, 그거였구나. 내 화분.’

나는 화분을 옆구리에 끼고 교실을 나왔다. 버려진다는 것은 그게 겨우 하루만이라도 가슴 아픈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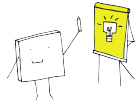
‘꽃도 못 피우는 바보인데. 나보다 더 슬플 거야.’

1. 가람이는 경비 아저씨에게 화분 하나를 받았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해 버려진 화분이었지만 가람이는 가슴이 뻘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① 화분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 ② 화분에 핀 꽃이 아름다워서
- ③ 경비 아저씨가 선물로 주신 것이어서
- ④ 이제 선생님이 화분 가져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2. 가람이의 화분 이름이 ‘바보꽃’인 이유를 적어 보세요.

3. 가람이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려는데 뭔가 허전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바보꽃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한 달 전, 할머니 집에 오던 날이 생각났다.

아빠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가람아, 당분간 할머니네 집에 있어.”

“싫어. 아빠랑 같이 갈래.”

내 말에 아빠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어머니, 당분간 가람이 좀 맡아 줘요. 금방 데려갈 거예요. 애 엄마 죽고 나서 가람이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아빠는 며칠 동안 내게 하던 말을 또 늘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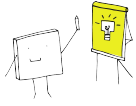
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작고 마른 할머니는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메말라 보였다. 결국 아빠는 나를 할머니 집에 두고 갔다. 나는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무료 신문처럼 할머니 집 소파에 버려졌다. 아빠가 나가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덜덜덜 떨기 시작했다. 추웠다.

1. 다음 글을 읽고 가람이가 할머니 집에 오게 된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나)에서 할머니와 가람이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 할머니 | 가람 |
|-----|----|
|     |    |

3. 아빠가 떠나고 가람이는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무료 신문처럼 할머니 집 소파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량하고 서운한 기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람이의 기분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바보꽃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이쿠, 뜨거워!”

할머니가 라면을 넣다가 소리를 질렀다. 냄비 뚜껑이 바닥으로 ㉠통탕탕 떨어졌다. 끓는 물이 된 것 같았다.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가락이 빨갛게 데었다.

나) “최가람, 그 화분 교실에 두고 가도 누가 안 훔쳐 간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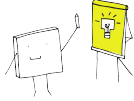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남겨지는 기분이 어떤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다. 내가 바보꽃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말하려면 그보다 먼저 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말해야 할 텐데.

다)“가람아 그 화분 말이다. 이제 그만 학교에 두고 다니지 그러냐. 거기서도 잘 자랄 거야.”  
“바보꽃이요?”

“그래, 그 꽃. 학교에 두었다가 겨울에 집으로 가져오면 되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사는 곳이 달라지는 게 꼭 버려지는 건 아니란 걸 이제 나도 안다. 바보꽃도 새로운 곳에서 혹시 꽃을 피울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그 얘길 하는 것 같다.

1.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입니다. ㉠의 의성어를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2. 가람이는 바보꽃을 학교에 가져간 이후부터 매일 집에 갈 때마다 바보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람이가 바보꽃을 가지고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글 라)에서 바보꽃이 학교에서도 잘 자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말씀에 가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람이가 할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람이의 마음을 짐작해서 적어 보세요.
4. 내가 할머니라면 바보꽃을 가지고 다니는 가람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가람이의 할머니가 되어 이야기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가운데 앉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리와 진영이가 나를 보고 콩콩 뛰었다. 우리 엄마가 하리와 진영이까지 태우고 펜션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오늘 거기서 하룻밤 잘 거다, 야호!

하라 엄마랑 진영이 엄마는 아까 짐을 싣고 먼저 출발했다.

내가 하라랑 진영이를 엄마 차에 태워달라고 졸랐다. 뒷좌석 가운데 앉고 싶어서 말이다. 우리 엄마 차니까 이번엔 내가 꼭 가운데 앉아야지.

다들 가운데 앉기를 좋아한다. 가운데 앉으면 하라도 가운데 앉은 나랑 말하고 진영이도 가운데 앉은 나랑 말해야 한다. 심지어 하라가 진영이에게 말할 때도 가운데 앉은 나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테니까. 내가 꼭 필요한 친구가 되는 거다. 생각만 해도 신난다.

나) “내가 가운데 앉을게.”

드디어 내가 말했다. 하라가 일 초쯤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운데는 날씬한 사람이 앉는 거야. 고운이 너는 뚱뚱하니까 안쪽에 타. 내가 가운데 앉을게.”

“싫어, 넌 맨날 가운데 앉잖아. 오늘은 우리 엄마 차니까 내가 가운데 앉을래.”

하라가 또 일 초쯤 생각하더니 말했다.

“안 돼, 안 돼. 가운데는 내 자리야. 먼저 들어가.”

하라는 나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도 일 초쯤 생각했다. 뚱뚱하다는데 한번 버텨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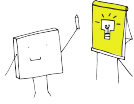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라랑 다투고 싶지 않았다. 우린 친구니까.

1.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고운, 하라, 진영이는 펜션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 ② 고운이는 하라랑 진영이를 엄마 차에 태워 달라고 졸랐다.
- ③ 고운이가 하라랑 진영이를 엄마 차에 태워 달라고 한 것은 뒷좌석 가운데에 앉고 싶어서다.
- ④ 하라는 가운데는 날씬한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 ⑤ 진영이는 가운데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

2. 고운이는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꼭 필요한 친구가 되는 것 같아 신이 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면서 내가 꼭 필요한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나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3. 뚱뚱한 사람은 가운데 앉을 수 없다는 하라의 말에 고운이는 가운데 자리 앉기를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친구의 말 때문에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포기할 때의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가운데 앉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음 뉴스에서 진영이는 좀비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하라는 좀비를 찍으러 나온 기자가 되었고 나는 좀비가 되었다. 좀비는 사람을 공격해야 하니까 나는 하라와 진영이를 공격했다.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많이 우습지 않았다. 공룡이랑 좀비는 멋진 데가 하나도 없었다.

나) “고운아, 완전 아줌마 같아.”

하라 눈에는 내가 아줌마 같은가 보다.

“잠자리인데? 이렇게 해 봐. 재밌어.”

하라가 다시 노래를 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난 풍덩이를 했다. 하라가 다시 웃었다. 나는 가만히 두 팔을 내렸다. 아줌마 같다는 건 뭘까? 똥똥한 거? 아니면 상상 놀이하는 거? 나는 조금 쓸쓸해졌다.

다)“내가 가운데 잘래.”

진영이가 가운데 누우며 말했다.

“그래, 난 이제 가운데는 안 할래. 생각만 해도 여기가 욕신욕신해.”

하라가 정수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ㅋㅋ 웃음이 났다.

“고운이 네 말을 듣는 건데 그랬어. 옆에 그냥 앉을걸. ㉠가운데가 아니면 어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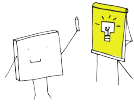
하라가 내게 눈을 찡긐하고는 진영이 옆자리로 들어가 누웠다. 나도 진영이 옆에 누웠다.

라) 생각해 보니 그랬다. 가운데가 아니어도 우린 친구인데.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같이 잘 수도 있고. 나는 진영이 옆구리를 간질였다.

1. 이 글에서 고운이가 친구들과 웃으면서 놀면서도 우습지 않고 쓸쓸했던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고운이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친구처럼 친구 사이에 꼭 필요한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고운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 보세요.

3. 밑줄 그은 ㉠의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내 생각을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⑥ 아홉 살 첫사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만 짝이 새로 바뀌었다. 내 옆쪽에 앉은 지훈이가 눈이 나쁘다니까 건우가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건우가 내 옆쪽으로 오게 됐다. 하고 싶은 말을 씩씩하게 하는 건우가 부러웠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발표하는 거 말이다. 친구들이 나를 한꺼번에 쳐다보는 게 부끄럽다.

나) 국어 시간에 자기 얼굴 관찰하기를 했다. 손거울을 보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학습지에 특징을 다섯 가지씩 썼다. 나는 이렇게 썼다.

1. 앞머리가 있다.
2. 얼굴이 하얗다.
3. 곱슬머리가 아니다.
4. 코가 작다.
5. 눈동자가 갈색이다.

1. 나는 건우가 왜 부러웠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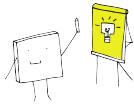
- ① 눈이 나쁜 지훈이를 위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배려심이 있어서
- ②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행복해 해서
- ③ 교실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서
- ④ 짝이 새로 바뀌어서
- ⑤ 하고 싶은 말을 씩씩하게 잘해서

2. 나)의 글에서는 국어시간에 손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고 나의 얼굴 특징에 대해 써 보세요.

3. 밑줄 친 ‘조마조마했다’를 넣어 짧은 글을 완성해 보세요.

수건을 놓은 친구들은 술래에게 안 잡히려고 막 달렸다. 아슬아슬한 게 꼭 잡힐 것만 같다. 내가 다 조마조마했다. 후다닥 달려와 술래 자리에 앉는데 우당탕탕 법석을 떨어서 엉덩이가 깨지게 생겼다.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⑦ 아홉 살 첫사랑

1. 다음 글 ㉠~㉣중에서 건우를 좋아하는 아인이의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을 적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우리 반은 아침에 수학 연산 문제를 푼다. ㉠건우는 수학도 잘했다. 학습지를 일등으로 풀었다. ㉡나도 건우처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풀었다. 건우가 하는 건 나도 하고 싶었다. ㉢건우는 책도 잘 읽었다. 나도 얼른 책을 꺼내 읽었다.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건우도 좋아하니까 기분이 더 좋았다.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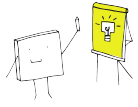
나는 건우가 교과서를 어디 펴는지 모를 때 쪽수도 가르쳐주고 책도 펴 줬다. 건우가 선생님께 들킬 것 같으면 얼른  찢었다. 그러면 건우가 냉큼 바른 자세를 하는 거다. 시침을 똑 떼고서.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하면 건우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건우와 한편이 된 것 같아  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머리에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다. 눈이랑 귀가 아주 커진 것처럼 말이다.

2. ㉠~㉣에 들어갈 흉내 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 ㉠    | ㉡       | ㉢    | ㉣    |
|---|------|---------|------|------|
| ① | 차곡차곡 | 빠죽거리기   | 반짝반짝 | 쿨쿨   |
| ② | 까르르  | 오순도순하기  | 짱긱짱긱 | 콩닥콩닥 |
| ③ | 빵빵   | 가우똥거리기  | 콩닥콩닥 | 덥석   |
| ④ | 쿵쿵   | 소곤거리기   | 두근두근 | 쓱쓱   |
| ⑤ | 똑똑   | 성큼성큼 걷기 | 복슬복슬 | 벌컥벌컥 |

3.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잘해 주었나요? 나의 경험을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창의융합\_응원이 필요한 친구에게 편지쓰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응원의 말이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응원이 필요한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써 보세요.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써도 됩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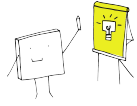
---

---

---

---

---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 2쪽                     | <p>1.<br/>예) 꽃 이름이 바보인 걸까?<br/>예) 꽃이 바보스럽다는 걸까?<br/>예)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와 여자 어른의 느낌이 따스한 느낌이 든다.</p> <p>2.<br/>1)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고 싶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 고민이다.<br/>2) 예시 답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애쓰다 보니 오히려 긴장해서 실수를 하게 될 것 같다.<br/>3) 예시 답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있다.</p>  |     |    |                        |                                     |
|------------------------|---|-----|----|------------------------|-------------------------------------|
| 3쪽                     | <p>1. ④<br/>2. 예시 답안) 꽃인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바보 같아서.<br/>3. 예시 답안) 화분을 교실에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겨우 하루라도 화분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슬플까 봐 마음이 아팠다.</p>   |     |    |                        |                                     |
| 4쪽                     | <p>1. 예시 답안) 가람이의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가람이를 키우기 어려워서.<br/>2.</p> <table border="1" data-bbox="343 1182 1372 1310"> <thead> <tr> <th data-bbox="343 1182 821 1227">할머니</th> <th data-bbox="821 1182 1372 1227">가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1227 821 1310">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메말라 보였다.</td> <td data-bbox="821 1227 1372 1310">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무료 신문처럼 할머니 집 소파에 버려졌다.</td> </tr> </tbody> </table> <p>3. 예시 답안)<br/>나는 사람 많은 거리에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진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br/>나는 주인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유기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p> | 할머니 | 가람 |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메말라 보였다. |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무료 신문처럼 할머니 집 소파에 버려졌다. |
| 할머니                    | 가람  |     |    |                        |                                     |
|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메말라 보였다. |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무료 신문처럼 할머니 집 소파에 버려졌다.   |     |    |                        |                                     |
| 5쪽                     | <p>1. 예시 답안) 오늘 점심 급식 반찬이 삼겹살 구이라는 것을 안 친구들은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통탕탕 급식실로 뛰어나갔다.<br/>통탕탕 : 잘 울리는 바닥에 무엇이 몹시 요란하게 떨어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br/>2. 예시 답안) 바보꽃에게 남겨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br/>3. 예시 답안) 가람이는 사는 곳이 달라지는 게 꼭 버려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보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br/>4. 예시 답안) 가람아, 바보꽃은 네가 충분히 사랑해주고 있어서 어디에 있든 괜찮아. 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지내자!</p>  |     |    |                        |                                     |

|     |   |
|-----|---|
| 6쪽  | <p>1. ㉔</p> <p>2. 예시 답안) 만들기를 할 때 선이 그어진 대로 가위질을 잘하는 나에게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꼭 필요한 친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p> <p>3. 예시 답안) 수업 시간에 조별 발표할 때 내가 발표하고 싶었는데 내 목소리가 작으니 친구가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다. 마음이 아쉽고 속상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다.</p>   |
| 7쪽  | <p>1. 예시답안) 좀비놀이를 할때는 친구들은 앵커와 기자같은 멋진 역할을 했지만 고운이가 했던 좀비와 공룡 역할은 멋지지가 않아서 우습지 않았고, 춤추는 놀이를 할 때는 재미있게 했지만 아줌마같다고 해서 쓸쓸해졌다.</p> <p>2. 예시 답안) 고운아! 멋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을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있는 그대로 멋지고 좋은 친구니까 속상해하지만! 너는 아주 재밌고 유쾌한 친구야.</p> <p>3. 예시 답안) 가운데에 앉아서 꼭 필요한 친구가 되지 않아도 친구이기 때문에 좋다는 뜻인 것 같다.</p> |
| 8쪽  | <p>1. ㉔</p> <p>2. 예시 답안) 1. 앞머리가 없는 단발머리이다. 2. 얼굴은 까무잡잡한 편이다. 3. 왼쪽 눈 아래쪽에 갈색 점이 있다. 4. 코가 높다. 5. 윗입술이 얇다.</p> <p>3. 예시 답안) 하나는 엄마에게 거짓말한 것을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다.<br/>조마조마하다 :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어 마음이 불안하다.</p>   |
| 9쪽  | <p>1. 예시 답안) ㉔ 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건우도 좋아하니까 기분이 더 좋았다.<br/>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똑같은 것을 좋아하면 기분이 좋으니까.</p> <p>2. ㉔</p> <p>3. 예시 답안) 급식에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내 것을 덜어 나누어 주었다.<br/>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챙겨 주었다.</p>  |
| 10쪽 | <p>1.<br/>예시답안) 할머니! 회사 다니시면서 요양보호사 공부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언제나 웃으면서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아픈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돌보고 싶어하시는 할머니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는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파이팅!</p>   |